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입장문

발행처: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발행인: 김용일 전화: 02-6977-6503 팩스: 0505-085-6503

외부 언론에는 파격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

내부 본부장 인사는 미래 비전을

거부한 현실 안주와 졸속 인사!!

노동조합은 11월 5일 본부장 인사를 접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경영을 선택했다는 회사의 비전과 방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총괄 및 부문대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인해 외부로부터 놀랄 만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은 들 무엇 하겠는가? 적어도 내부 본사 본부장 인사는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한 졸속 인사였음이 드러났다.

내부 발탁을 통해 젊고 혁신적인 부문대표 인선을 단행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사 본부장의 자리에는 어떠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는가? 총괄, 부문대표와 함께 호흡할 본부장 자리에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오로지 본인의 안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몇몇의 그들이 그대로 유임되었고, 빈 자리 역시 직원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로 자리를 채우는 엉터리 인사로 우리는 비관적인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직원의 발전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본인의 안위만 생각한다”

“절대권위를 내세우며 소리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

“부서 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업무능력, 리더십, 인간성 중 어느 하나라도 60점만 되었 어도 우리 팀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다”

우리 직원들이 직책자를 평가한 표현이다. 회사는 이런 평가를 받은 직책자들을 유임 및 신규 발탁했다. 직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리더십과 회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차이가 이 정도로 괴리감이 큰 것인가?

“회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직책자를 평가하고 판단했는가?”

“도대체 왜 해마다 일어나는 정기 임원 인사는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불공정한 인사라고 우리는 느껴지는가?”

직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는 직책자가 유임되고 신규 발탁되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혁신과 변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조직의 미래를 선택했다면, 그에 적합한 본사 본부장 인사를 통해 회사와 직원의 미래를 설계했어야 했다.

물론 모든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본사 본부장 인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연상케 하는 본부장/팀장 그들 만의 리그였다. 또한 그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 받은 것이 아닌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결과물을 본인의 성과로 잘 포장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 인사였음을 회사는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볼 것이다!

조만간 있을 팀장, 지점장 인사에 있어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대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것과 보이지 않는 힘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려는 관리자는 전격교체 하라!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이다.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쓸모 없는 장식품은 과감하게 내다 버리거나 안보이는 상자에 넣어두길 바란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리더”

“열린 사고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합리적 리더”

“미래 가치에 입각해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리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리더”

우리는 이렇게 따를 수 있는 리더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고 싶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문제가 있는 본사 본부장들의 행동을 수시로 감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분기 중이라도 회사에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직책자를 분명히 알고 있다! 개인적인 관계 따위는 합병 이후 5년
동안 지켜줬으면 충분하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조만간 예정된 본사 팀
장, 센터장, 지점장 인사에서 다시금 보여줘라!

우리와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며 함께 일하는 관리자를 선임하는 일이다. 우리 직원들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관리자 선발에 본사 본부장 선임처럼 직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또다시 인사를 단행할 시에는 회사의 미래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창시
적인 미래 그림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